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9

▶ **70회 예고**
니그로다의 추천으로 율사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아쇼까라마 책임자가 된다. 목갈리뿟다띠사는 아쇼까왕의 요청으로 설법한다. 아쇼까왕은 감동하여 목갈리뿟다띳사가 원하는 대로 전국에 8만 4천 개의 사원을 짓도록 명한다.



니그로다, 아쇼까왕을 만나다

숲 저쪽 꾸꾸따라마 터에는 왕궁처럼 큰 사원이 조성되고 있었다. 아쇼까의 이름을 딴 사원이었다. 수만 명의 수행자들이 상주하며 수행할 수 있는 아쇼까라마였다. 수행자들은 아쇼까라마가 완공되기만을 기다렸다. 아쇼까라마에 들어가게 된다면 밤새 반얀나무나 삡빨라나무 아래서 웅크리고 자지 않아도 되며, 아침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 탁발할 필요가 없을 터였다. 아쇼까왕의 특명으로 짓고 있으므로 다른 전통사원들과 달리 수행자들의 의식주는 물론 약(藥)까지 불편함 없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쇼까왕은 그날 아침에 우연히 노란색 옷을 입은 브라흐마교 수행자들이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사자 문양이 새겨진 발코니에 서서 우연히 보게 된 공양풍경이었다. 수행자들은 게걸스럽게 공양을 했다. 천박할 뿐 절제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진리를 추구하는 고행의 수행자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쇼까왕은 발코니에 선 채 중얼거렸다.

'이런 천박한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느니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

아쇼까왕은 라다굽따 수상에게 지시했다.

"공양 받을 만한 수행자는 없는 것이오? 가서 공양을 받을 만한 자들을 데려오시오. 나는 앞으로 그들을 우대할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수행자가 저런 것은 아닙니다. 저 자들 말고 공양 받을 만한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아쇼까왕은 고행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왕궁정원에 크고 작은 식탁을 높고 낮은 곳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흰색의 일산을 편 식탁도 마련하도록 명했다. 그 사이에 라다굽따는 수행자들이 공양하는 장소로 가서 빤다랑가 종파, 아지비까 종파, 자이나교 종파 등의 고행자 중에서 장로들을 데려왔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이들이야말로 공양 받을 만한 고행자 장로들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자리를 마련해 놓았으니 그대들에게 적당한 곳에 앉으시오."

장로 고행자들은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찾아가 앉았다. 그런데 서로가 일산이 펴진 자리와 높은 자리로 가려고 행동했다. 아쇼까왕은 또 다시 실망했다.

'겸손함 뿐만 아니라 머리에 든 것이 전혀 없군.'

아쇼까왕은 장로 고행자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대접한 뒤 설법을 듣지 않고 그대로 보내버렸다. 장로 고행자답게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거나 언행이 우아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장로 고행자들에게 몹시 실망한 아쇼까왕은 별다른 생각 없이 발코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때마침 어린 니그로다 사문이 공양 전에 왕궁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가 왕궁으로 나 있는 길을 걸어보기는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공양장소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공양이 끝나면 즉시 강가강 동굴로 가서 스승 마하바루나를 시봉했던 것이다. 마하바루나는 늙고 병들어 짠달라 천민촌으로 가서 설법하지 못했다. 동굴 속 대나무 침상에 눕거나 앉아서 주로 불경을 암송하면서 소일했다.

왕궁으로 가는 길가에는 붉고 노란 양귀비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니그로다는 양귀비꽃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왕궁의 정궁 발코니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정궁 발코니에 앉아 있던 아쇼까왕이 어린 사문 니그로다를 보았다. 니그로다는 아쇼까왕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린 니그로다의 용모는 우아했다. 삭발한 머리는 아침햇살에 반짝거렸고, 주황색 가사는 더 없이 정갈했다. 니그로다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쇼까왕이 중얼거렸다.

'백성들 대부분은 뿔뿔이 흩어지는 사슴 떼처럼 마음이 산란한데, 저 어린 사문은 마음을 한 데 모아 걷고 있구나. 마차의 멍에 길이만큼 시선을 앞쪽에 고정해 두고 걷는 걸음걸이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구나.'

아쇼까왕은 친위대장을 불러 말했다.

"대장, 저 어린 사문을 보니 애정이 일고 존경하는 마음이 드오. 모셔오도록 하시오."

"예, 대왕님."

친위대장은 급히 정궁을 나와 왕궁을 둘러보고 있는 니그로다에게 다가가 말했다.

"사문이여, 대왕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를 말이오? 이유가 무엇이오?"

"대왕님을 알현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겠소."

니그로다는 망설이지 않고 친위대장을 따라갔다. 아쇼까왕이 발코니 의자에 앉아서 니그로다를 맞이했다.

"나는 불교신자는 아니오. 그러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제도하는 불교에 관심이 많소. 나는 꾸꾸따라마 터에 아쇼까라마를 짓고 있소."

"대왕님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자, 어느 자리로 가서 공양하겠소? 어느 자리라도 내가 허락하겠소."

니그로다는 왕궁정원을 둘러보았다. 공양할 자리가 마련된 정원에는 수행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니그로다는 마음 가는 대로 흰 일산이 펴져 있는 식탁으로 갔다. 그러자 아쇼까왕이 생각했다.

'어린 사문이 오늘 이 순간만큼은 왕궁정원의 주인이군.'

잠시 후 니그로다는 궁녀들이 가져온 공양을 기꺼이 받았다. 공양물은 짜파티 한 장과 짜이 한 잔, 그리고 바나나 한 개와 포도 한 송이가 전부였다. 니그로다는 짜파티 한 장과 짜이만 마셨다. 니그로다가 공양을 마치자마자 아쇼까왕이 말했다.

"사문이 기억하는 담마를 나에게 설해 줄 수 있소?"

"대왕님이시여, 소승은 스승 마하바루나 아라한님에게 들은 존귀한 붓다의 담마를 기억합니다."



"사문이여,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시오."

니그로다는 〈담마빠다(법구경)〉의 한 구절을 외웠다.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고
방일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으나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사문은 내가 미처 모르던 것을 일깨워 주었소. 나태한 자도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았소."

"대왕님이시여, 이 담마가 전능한 붓다가 남긴 모든 설법의 뿌리이옵니다."

"내게 설법의 근본을 알려주다니 경의를 표하고 싶소. 나는 설법의 근본을 들은 대가로 왕궁정원에서 불교 장로 여덟 분에게 항상 공양 올리겠소."

수행자들이 공양하는 일반장소가 아닌 넓은 왕궁정원에서 니그로다가 추천하는 여덟 명의 장로에게 공양을 올리겠다는 말이었다. 아쇼까왕이 물었다.

"사문은 어느 사원에서 왔소?"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곳은 강가강 언덕의 동굴이옵니다."

"스승은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소?"

"지금은 늙고 병들어 동굴에 주로 계시지만 평생 동안 짠달라 천민촌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천민촌이 아닌 큰 도시에서 설법했다면 많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천민도 백성이옵니다. 저는 천민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마하바루나 아라한님을 만나 사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하바루나 아라한님은 어디에서 설법했든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신 분입니다."

"사문이여,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아쇼까왕이 니그로다의 논리정연한 말에 탄복하여 이름을 물었다.

"소승의 이름은 니그로다입니다."

아쇼까왕이 깜짝 놀랐다.

"니그로다!"

"대왕님이시여, 왜 놀라십니까?"

"수시마 형님이 사문의 아버지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인연이란 강가강과 같은 것입니다. 온갖 사연이 한 몸으로 섞이기도 하고,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는 물방울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소승은 인연을 따라 살 뿐 지나간 일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과거를 생각하며 회한에 잠긴 일은 없습니다."

"오! 사문이여."

아쇼까왕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 니그로다의 짧지만 아름다운 설법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신과 권력투쟁 중에 죽은 이복형 수시마가 떠올라 순식간에 심란해졌다. 괴로운 감정이 니그로다를 바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솟구쳐 올랐다. 아쇼까왕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내 앞에 수시마 형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소."

"소승은 과거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현재는 소승 니그로다만 여기 있을 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형수님은 어디에 있소?"

"짠달라 천민촌에 계십니다. 마하바루나 아라한님께 귀의한 뒤부터 마음 편히 살고 계십니다."

"브라흐민 왕족이 어찌 천민촌에서 산단 말이오? 나는 왕궁으로 형수님을 불러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사시게 할 것이오."

니그로다가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는 절대로 왕궁에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왕궁은 어머니에게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낙원은 짠달라 천민촌입니다. 지옥과 낙원은 눈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왕님께서는 어머니를 그대로 두셔야 할 것입니다."

아쇼까왕은 니그로다가 어린 나이의 조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설법하는 사문임을 실감했다. 니그로다는 이제 조카가 아니라 세속을 버리고 출가한 사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아쇼까왕은 니그로다를 제관처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다.

"니그로다, 아쇼까라마를 책임지고 맡아주시오."

"대왕님, 소승은 짠달라 천민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승 마하바루나 아라한님이 했던 일을 제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마우리아왕국의 백성입니다."

아쇼까왕은 니그로다에게 더 이상 청하지 않았다. 명령할 생각도 없었다. 천민인 달리뜨들과 동고동락하겠다는 그의 사문다운 태도를 존중했다. 니그로다는 아쇼까왕이 아직도 자신을 조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왕이 아닌 삼촌으로서 무언가 특혜를 주고 싶어 한다고 느꼈다. 아쇼까왕이 아쉬워하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아쇼까라마를 맡아줄 수 있는 사문을 추천해 주시오."

"최고의 율사가 계십니다."

"그 율사는 어떤 사문이고 어디에 살고 있소?"

"강가강 언덕의 동굴에 살고 계십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사문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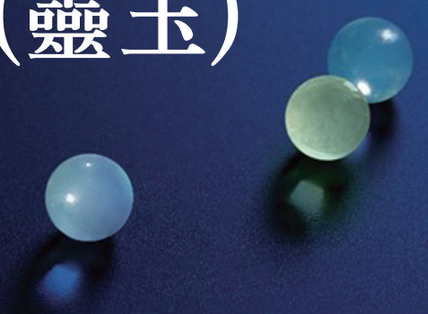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를 기억해냈다. 어린 시절 불법과 산스끄리뜨어를 가르쳐주었던 스승이 바로 목갈리뿟다띳사였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스승이 된 까닭은 아버지 빈두사라왕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왕은 어린 아쇼까에게 브라흐마교는 물론 다양한 종교관을 심어주기 위해 대신들에게 불교 사문을 추천하라고 명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어린 시절이 그리웠다. 뿐만 아니라 목갈리뿟다띳사에게 함부로 굴었던 행동이 미안하기도 하여 그를 불러들여 최상의 예우를 하고 싶었다. 그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리라고 작정했다.〈계속〉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